

《黃帝八十一難經》의 脈診에 관한 研究(Ⅱ)

白貞義 · 尹暢烈*

I. 緒 論

《難經》은 《黃帝八十一難經》이라고도 하며, 모두 3권(5권본도 있음)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內經》의 요지를 천명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문답형식으로 모두 81개의 문제를 편집하였으며, 《內經》이후 가장 중요한 전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難經》의 작자와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다. 문헌에 의하면, 최초로 《難經》이라는 이름을 제기한 것은 東漢의 張仲景의 《傷寒雜病論自序》로서, 그 내용 중에 “《素問》·《九卷》·《81難》을 선용하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작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隋書經籍志》중에는 비록 이미 정식으로 《難經》이 수록되어 있으나 역시 작자와 책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곧 바로 당나라 양현조의 《難經集注》와 《舊唐書·經籍志》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難經》의 작자가 戰國시대의 秦越 사람인 扁鵲이라고 지적되어 있다. 《難經集注》서문에는, ‘黃帝의 81難經이라는 것은 渤海 秦越 사람이 지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史記·扁鵲倉公列傳》과 《漢書·藝文志》에는 모두 《難經》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秦越 사람은 《難經》의 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宋代의 李昉의 《太平御覽·金匱針經·序》에는 ‘呂廣은 어려서 의술로 이름이 났다. 診脈과 치료를 잘 하였고 저술이 많았다. 오나라 赤烏 2년에 太醫승이 되었고, 《金匱針經》을 짓고 《81難》을 주석하여, 크게 유행하였다.’고 하였다. 吳나라 赤烏 2년(239)은 三國時代의 손권의 연호이니, 이는 이

시기에 《難經》이 이미 증시되었음을 시사한다. 《四庫全書總目·難經本義》는 “《難經》81편은 《漢書藝文志》에는 실리지 않았고, 《隋唐志》에 비로소 실렸으며 …… 吳나라 太醫승인 呂廣이 일찍이 주석을 달았다.”에 근거하여, “그 글은 三國時代 전에 나온 것이다.”라고 단정하였다. 일본학자 丹波元胤은 《中國醫籍考》에서, 《難經》은《素問》, 《靈樞》에 비해서 말투가 약간 약하니 東漢 이후 사람에게서 나온 것 같다. 그 기록도 그 당시의 말과 비슷하다. 元氣 같은 지칭도 董仲舒의 《春秋繁露》, 樣雄의 《解嘲》에 처음 보인다.’고 하여, 《難經》이 東漢시기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難經》의 내용이 주로 《內經》에서 제시된 기본 논리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內經》이후에 나온 책이라고 생각한다. 西漢시대의 《史記》와 東漢시대 초기의 《漢書藝文志》에 모두 《難經》이 언급되지 않고, 東漢 말기의 張仲景의 《傷寒論》과 《隋書·經籍志》에 《難經》이라는 책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赤烏2년(239)에 呂廣이 《難經》의 주석을 낸 것은 늦어도 東漢 말년에는 《難經》이 쓰였거나 이미 세상에 유포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밖에 《難經》중에 인용된 말들, 예컨대 ‘肝得水而沈, 水得木而浮, 肺得水而浮, 金得水而沈’같은 말은 모두 班固가 지은 《白虎通》에 나온다. 이는 章帝 4년(79)白虎觀에서 經學을 논변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서, 역시 《難經》이 東漢시대에 지어졌음을 반증한다. 《難經》의 작자에 대해서는 좀더 고증을 해야하지만, 秦越사람이 라는 설은 부정될 수 있다.

《難經》이라는 책이름에 대해서 역대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難을 問難의 의미로 보는 것이다. 청대의 서영태는 책보《難經經釋》서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靈樞》와 《素問》의 미묘한 말과 깊은 뜻으로서 그 의미가 완전히 드러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나지 않은 것을 문답의 형식으로 설정하여 그 의미를 파 해친 것이다.” 다른 하나는 難을 難易의 難으로 보는 것이다. 당나라의 楊玄操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八十一難이라고 명칭한 것은 그 이치가 매우 어려워서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難經》의 체계와 의미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 해석이 보다 합당한 것 같다.

《難經》은 《內經》의 기초 위에서 81개의 문제를 제기하여 중점적으로 토론하였다. 그 내용은 生理, 病理, 診斷, 그리고 治療 등 각 방면에 미처 있다.

元代 吳澄의 분편 방법에 의하면 八十一難은 여섯 편으로 나뉜다. 一難에서 二十二難까지는 脈學, 二十三難에서 二十九難까지는 經絡, 三十難에서부터 四十七難까지는 臟腑, 四十八難부터 六十一難까지는 疾病, 六十二難부터 六十八難까지는 腧穴, 六十九難부터 八十一難까지는 針法이다. 이에 따라 脈學이 《難經》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難經》은 《內經》이 일찍이 제출한 寸口診法을 진행시키고 발전하여 ‘獨取寸口’의 診脈方法을 확립했다.

《難經》의 책이 이루어진 후에 일찍부터 중요한 서적으로 전해졌다. 그 가운데에서 확립된 寸口診脈法은 후세 의가들이 존중하는 바가 되었다.

II. 本 論

1. 獨取寸口

《難經》은 脈學을 크게 증시하여 論脈의 부분을 가장 전면에서 제시하였으며 전서의 41 가량이 脈에 대한 문제이다. 診脈의 방법으로 그 개시 부위에 獨取寸口법을 제시 하였다. 內經의 시대에도 內經脈을 상당히 중시하였지만 人迎과 결합된 “人迎寸口診法”, 尺診과 결합된 “尺寸診法” 등이었다.

難經에서는 十二經에는 모두 脈動處가 있으나 十二經 중 유독 手太陰肺經에 속하는 寸口를 취해서 五臟六腑의 병변을 판단한다고 하였다.¹⁾

1) 一難曰 十二經 皆有動脈 獨取寸口 以決五臟六腑 死生 吉凶之法 何謂也

寸口の 부위를 취한 근거로는 寸口는 脈이 모이는 곳이며 手太陰의 脈動處라고 하였다.²⁾

手太陰은 또한 五臟六腑의 氣가 終始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

2. 呼吸과 脈의 순환관계

사람이 한번 呼吸하는 동안에 脈은 6寸을 가고 하루 밤낮 동안에 13,500번을 呼吸하니 81000寸 즉 810丈을 진행한다.⁴⁾

手三陽의 脈은 손으로부터 머리에 이르고 길이는 5尺이니 $5 \times 6 = 30$ 이니 3丈이다.

手三陰의 脈은 손으로부터 胸中에 이르고 길이는 3尺 5寸이니 $3 \times 6 = 18$ 이니 18尺 곧 1丈 8尺과 $5 \times 6 = 30$ 이니 3尺 합하여 2丈 1尺이다.

足三陽의 脈은 발로부터 머리에 이르고 길이는 8尺이다. $8 \times 6 = 48$ 4丈 8척이다.

足三陰의 脈은 발로부터 가슴에 이르고 길이는 6尺 5寸이다. $6 \times 6 = 36$ 3丈 6척과, $5 \times 6 = 30$ 3척이니 3丈 9尺이다.

兩足蹻脈은 발로부터 눈에 이른다. 길이는 7尺 5寸이므로 양측이 모두 1丈 5尺이다.

督脈과 任脈은 각각 길이가 4尺 5寸이니 합하여 9尺이다.

그러므로 手足三陰과 三陽 그리고 任脈과 督脈 兩足蹻脈을 합하면 모두 16丈 2尺이다.

하루밤낮 동안에 脈은 우리 몸을 50번을 주행하게 된다.⁵⁾

2) 然寸口者 脈之大會 手太陰脈動也 (一難)

3) 故五十度 復會於手太陰寸口者 五臟六腑之所終始 故法取寸口也

4) 人一呼 脈行三寸 一吸 脈行三寸 呼吸定息 脈行六寸 人一日一夜 凡一萬三千五百息 脈行五十度周於身 漏水下百刻

榮衛行陽二十五度 行陰亦二十五度 爲一周也 (一難)

5) 手足三陰三陽 脈之度數 可曉以不? 然 手三陽之脈 從手至頭 長五尺 五六合三丈 手三陰之脈 從手至胸中 長三尺五寸 三六一丈八尺 五六三尺 合二丈一尺 足三陽之脈 從足至頭 長八尺 六八四丈八尺 足三陰之脈 從足至胸 長六尺五寸 六六三丈六尺 五六三尺 合三丈九尺 人從兩足蹻脈 從足至目 長七尺五寸 二七 一丈四尺 二五一尺 合

3. 寸關尺의 부위

內經에서 이미 尺寸을 按脈하는 診脈法이 있었으나 이것은 尺膚의 診法으로 難經에서 말하고 있는 尺脈과는 차이가 있다. 難經에서는 寸口の 부위를 關을 중심으로 하여 尺寸의 分界處에 關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로써 關의 시작은 難經에서 비롯된다.

難經에서는 寸口の 부위를 關을 중심으로 하여 關으로부터 尺에 이르는 곳을 尺內라고 하며 陰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래서 陰은 尺內의 1寸에서 얻어진다.

關으로부터 魚際에 이르는 곳이 곧 寸口內이다. 陽이 다스려 지는 곳이다. 그래서 陽은 寸內 9分 사이에서 얻어진다.

그러므로 尺寸의 終始는 一寸九分이 된다.⁶⁾고 하여 關의 위치를 설정하였다.

또한 關의 앞인 寸口에서는 陽이 動하기 때문에 脈은 마땅히 九分사이에서 浮脈으로 나타나야 한다. 九分の 범위를 벗어나 지나친 것은 太過 모자란 것은 不及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關의 後인 尺內에서는 陰이 動하기 때문에 脈은 마땅히 一寸사이에서 沈脈으로 나타나야 한다.⁷⁾ 陽과 마찬가지로 一寸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되면 太過 모자란 것은 不及으로 구분하였다.

즉 陽脈은 浮脈이고 陰脈은 沈脈으로 정의되고 있다.

4. 脈의 陰陽

四難에서 脈에는 陰陽의 법칙이 있다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陰陽이란 곧 浮脈과 沈脈을 의미한다.⁸⁾

陰陽을 다시 指下 用力의 輕重으로 五臟의 정상적인 陰陽脈象으로 分別하였다.

呼氣時에는 心과 肺로 나가고 吸氣 때는 腎과

一丈五尺 督脈任脈 各長 四尺五寸 二四八尺 二五一尺 合九尺 八脈 長一十六長二尺 此所謂 十二經脈長短之數也 (二十三難)

肝으로 들어오며 呼吸의 사이에 脾가 穀米를 받기 때문에 그 脈은 중앙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心脈과 肺脈은 모두 浮脈이나 心脈은 浮하면서 大散한 것이며 肺脈은 短澁하다.

腎脈과 肝脈은 모두 沈脈이나 腎脈은 牢而長하며, 肝脈은 누르면 濡하고 손가락을 들면 오는 것이 實하다. 脾는 中州이기 때문에 그 脈이 中央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陰陽의 脈으로 분류되던 것은 다시 五臟으로 분류되면서 五行과 연관지어지고 있다.

陰陽은 다시 三陽과 三陰의 六氣로 분류되어지고 있다.

脈에는 一陰一陽, 一陰二陽, 一陰三陽이 있고, 一陽一陰, 一陽二陰, 一陽三陰이 있다. 고 했으나 이것은 浮, 沈, 長, 短, 滑, 澁脈을 말한 것이다. 이 여섯 가지 脈象은 혹자는 이것을 六綱領의 脈이라고도 한다. 六脈 중에서 浮, 滑, 長의 脈은 陽에 속하고, 沈, 短, 澁은 陰에 속한다. 이 여섯 가지 脈象은 서로 결합하여 나타난다.

一陰一陽은 脈이 沈(陰)하고 滑(陽)하다.

一陰二陽은 脈이 沈(陰)滑(陽)하고 長(陽)하다.

一陰三陽은 脈이 浮(陽)滑(陽)하고 長(陽)하며 때로 한 번 沈脈(陰)이 나타난다.

一陽一陰은 脈이 浮(陽)하고 澁(陰)하다.

一陰二陰은 脈이 長(陽)하고 沈(陰)하며 澁(陰)하다.

一陽三陰은 脈이 沈(陰)澁(陰)하고 短(陰)하며 때로 한 번 浮脈(陽)이 나타난다.⁸⁾

6) 脈有尺寸何謂也 然 寸口者 脈之大要會也 從關至尺是尺內 陰之所治也 從關至魚際 是寸口內 陽之所治也

故分寸爲尺 分尺爲寸 故陰得尺內一寸 陽得寸內九分 尺寸終始一寸九分 故曰尺寸也 (二難)

7) 然關之前者 陽之動也 脈當見九分而浮 …… 關以後者 陰之動也 脈當見一寸而沈 …… (三難)

8) 四難曰 脈有陰陽之法 何謂也 然 呼出 心與肺 吸入 腎與肝 呼吸之間 脾受穀味也 其脈在中 浮者陽也 沈者陰也 故曰陰陽也 心肺俱浮 何而別之 然 浮而大散者 心也 浮而 短澁者 肺也 腎肝俱沈 何而別之 然 牢而長者 肝也 按之濡舉指來實者 腎也 脾者 中州 故 其脈在中 是陰陽之法也 脈有一陰一陽, 一陰二陽, 一陰三陽, 有一陽一陰,

5. 持脈의 深淺으로 五臟을 구별

손가락 끝으로 脈을 짚는 정도를 가볍게 했다가 무겁게 했다가 하면서 肺, 心, 脾, 肝, 腎의 五臟의 상태를 각각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손가락 끝에 콩 세 개를 올려놓을 정도의 힘으로 맥을 짚어 皮毛의 부위에서 肺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콩 여섯 개의 무게 정도의 힘으로 血脈의 부위에서 心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콩 아홉 개의 무게 정도의 힘으로 肌肉의 부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脾의 상태이며, 콩 열두 개의 무게 정도의 힘으로 筋의 위치에서 얻어지는 것이 肝의 상태이며, 脈을 짚어 骨의 부위까지 이르도록 하여 손을 조금 들었을 때 빠르게 오는 것이 腎의 상태라고 하였다.⁹⁾

이는 四難에서의 心肺는 浮에서, 肝腎은 沈部에서 얻어진다는 것과 연결선상에서 이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6. 脈의 陰盛陽虛와 陽盛陰虛

持脈시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 脈이 작고 누르면 實하고 크면 陰盛陽虛가 되고, 누르면 實하고 들어 올리면 작아지는 것은 陽盛陰虛이다.¹⁰⁾

7. 六氣의 旺脈¹¹⁾

脈象은 기후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된다.

그래서 일년을 六十日씩 육 단계로 나누었다.

冬至로부터 六十日까지 (冬至, 小寒, 大寒, 立春의 사절기 동안)는 少陽의 氣가 작용한다. 이때의 脈象은 잠깐 크다가 작다가 하면서 잠깐 짧았다 길었다 한다.

一陽二陰, 一陽三陰 如此之言 寸口有六脈俱動邪 然此言者 非有六脈俱動也 謂 浮沈長短滑瀉也 浮者陽也 滑者陽也 長者陽也 沈者陰也 短者陰也 瀉者陰也 所謂 一陰一陽者 謂 脈來沈而滑也 一陰二陽者 謂 脈來沈滑而長也 一陰三陽者 謂 脈來浮滑而長 時一沈也 所謂 一陽一陰者 謂 脈來浮而瀉也 一陽二陰者 謂 脈來長而沈瀉也 一陽三陰者 謂 脈來沈瀉而短 是一浮也 各以其經所在 各病逆順也(四難)

雨水로부터 六十日까지 (雨水, 驚蟄, 春分, 清明의 사절기 동안)는 陽明의 氣가 작용한다. 이때의 脈象은 浮大하면서 짧다.

穀雨로부터 六十日까지 (穀雨, 立夏, 小滿, 芒種의 사절기 동안)는 太陽의 氣가 작용하며 脈象은 洪大하고 길다.

夏至로부터 六十日까지 (夏至, 小暑, 大暑, 秋分의 사절기 동안)는 太陰의 氣가 작용하며 脈象은 緊大하고 길다.

處暑로부터 六十日까지 (處暑, 白露, 秋分, 寒露의 사절기 동안)는 少陰의 氣가 작용하며 脈象은 緊細하고 微하다.

霜降으로부터 六十日까지 (霜降, 立冬, 小雪, 大雪의 사절기 동안)는 厥陰의 氣가 작용하며 脈象은 沈短하고 敦하다.

8. 臟腑의 病을 寒熱로 나눈다.

모든 陽은 熱이다. 數脈이 나타나면 熱이 되므로, 腑의 病이고,

모든 陰은 寒이다. 遲脈이 나타나면 寒이 되므로, 臟의 病이다.¹²⁾

9) 五難曰 脈有輕重 何謂也 然 初持脈 如三菽之重 與皮毛相得者 肺部也 如六菽之重 與血脈相得者 心部 如九菽之重 與肌肉相得者 脾部也 如十二菽之重 與筋平者 肝部也 按之至骨 舉指來疾者 腎部也

10) 六難曰 脈有陰盛陽虛 陽盛陰虛 何謂也 然 浮之損小 沈之實大 故曰陰盛陽虛 沈之損小 浮之實大 故曰陽盛陰虛 是陰陽虛實之意也

11) 七難曰 經言 少陽之至 乍大乍小 乍短乍長 陽明之至 浮大而短 太陽之至 洪大而長 太陰之至 緊大而長 少陰之至 緊細而微 厥陰之至 沈短而敦 此六者 是平脈邪 將病脈邪 然皆王脈也 其氣以何月 各王幾日 然 冬至之後 得甲子 少陽王 復得甲子 陽明王 復得甲子 太陽王 復得甲子 太陰王 復得甲子 少陰王 復得甲子 厥陰王 王各六十日 六六三百六十日 以成一歲 此 三陽三陰之 王時日 大要也

12) 九難曰 何以別知 臟腑之病耶? 然 數者 腑也 遲者 臟也 數則 爲熱 遲則 爲寒 諸陽爲熱 諸陰爲寒 故以別知 臟腑之病也

9. 一脈十變

十難에서는 동일한 脈位에서 脈이 十變하는 것은 五邪剛柔를 만남에 따라서이라고 하며 心脈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¹³⁾

즉 心脈이 急甚한 것은 肝邪가 心을 범한 것이다.(剛)

心脈이 微急한 것은 膽邪가 小腸을 범한 것이다.(柔) (木生火의 관계로 虛邪이다.)

心脈이 大甚한 것은 心邪가 스스로를 범한 것이다.(剛)

心脈이 微大한 것은 小腸의 邪가 스스로를 범한 것이다.(柔) (正邪)

心脈이 緩甚한 것은 脾臟의 邪가 心을 범한 것이다.(剛)

心脈이 微緩한 것은 胃의 邪가 小腸을 범한 것이다.(柔) (火生土의 관계로 實邪이다.)

心脈이 瀦甚한 것은 肺邪가 心을 범한 것이다.(剛)

心脈이 微瀦한 것은 大腸邪가 小腸을 범한 것이다.(柔) (火克金의 관계로 微邪에 속한다.)

心脈이 沈甚한 것은 腎邪가 心을 범한 것이다.(剛)

心脈이 微沈한 것은 膀胱邪가 小腸을 범한 것이다.(柔) (水克火의 관계로 賊邪에 속한다.)

心 이외에도 肝, 肺, 脾, 腎도 동일한 양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五邪의 명칭에 대해서는 五十難에 보인다.¹⁴⁾

四十九難에서는 正經自病과 五邪所傷의 경우에 있어서의 脈象의 변화를 心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¹⁵⁾

憂愁思慮로 인하여 心을 傷하고, 形寒飲冷하여 肺를 傷하고, 恚怒氣逆하여 올라간 氣가 내려오지

못하면 肝을 傷하고, 飲食勞倦하여 脾를 傷하고, 濕地에 오래 앉아있고 무리하게 물에 들어가서 腎을 傷하는 것은 正經自病에 속한다.

이러한 病의 원인이 기타의 장기를 범할 때를 五邪라고 하였다.

心臟의 경우에 心臟의 脈象은 浮大하지만

中風이 되면 肝脈인 弦脈이 더하게 되어 浮大而弦하게 된다.

傷暑가 되면 心脈이 더하게 되어 浮大脈이甚해져서 浮大而散한 脈象이 나타난다.

飲食勞倦하면 脾脈인 緩脈이 더하게 되어 浮大而緩한 脈象이 나타난다.

傷寒이 되면 肺脈인 瀦脈이 더하게 되어 浮大而瀦한 脈象이 나타난다.

中濕이 되면 腎脈인 沈脈이 더하게 되어 沈濡而大한 脈象이 나타난다.

10. 脈이 五十動을 채우지 못하고 한번 그치는 것은 一臟에 氣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呼吸할 때 吸한 것은 陰을 따라 들어가고, 呼한 것은 陽을 因하여 나온다. 그러므로 一臟에 氣가 없다고 한것은 五臟중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는 腎氣가 먼저 다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¹⁶⁾

14) 五十難曰 病有虛邪 有實邪 有賊邪 有正邪 有微邪 何以別之 然 從後來者爲虛邪 從前來者爲實邪 從所不勝來者爲賊邪 從所勝來者爲微邪 自病爲正邪……

15) 四十九難曰 有正經自病 有五邪所傷 何以別之 然 憂愁思慮 則傷心 形寒飲冷 則傷肺 恚怒氣逆 上而不下 則傷肝

飲食勞倦 則傷脾 久坐濕地 強力入水 則傷腎 是正經自病也 何以五邪 然 有中風 有傷暑 有飲食勞倦 有傷寒 有中濕 此之謂五邪 假令心病 何以知中風得之 然 其色當赤 …… 其病身熱 脇下滿痛 其脈浮大而弦 何以知傷暑得之 然 當惡臭 …… 其病身熱而煩 心痛 其脈浮大而散 何以知飲食勞倦得之 然 當喜苦味也 …… 其病身熱 而體重起臥 四肢不收 其脈浮大而緩 何以知傷寒得之 然 當譫言妄語 …… 其病身熱 瀦瀦惡寒 甚則喘咳 其脈浮大而瀦 何以知中濕得之 然 當喜汗出不可止 其病身熱 小腹痛 足脛寒而逆 其脈沈濡而大 此五邪之法也

16) 十一難曰 脈不滿五十動而一止 一臟無氣者 何臟也

13) 十難曰 一脈爲 十變者 何謂也 然 五邪剛柔 相逢之意也 假令 心脈 急甚者 肝邪 干心也 心脈 微急者 膽邪 干小腸也 心脈 大甚者 心邪 自干心也 心脈 微大者 小腸邪 自干小腸也 心脈 緩甚者 脾邪 干心也 心脈 微緩者 胃邪 干小腸也 心脈 瀦甚者 肺邪 干心也 心脈 微瀦者 大腸邪 干小腸也 心脈 沈甚者 腎邪 干心也 心脈 微沈者 膀胱邪 干小腸也 五臟 各有剛柔邪 故令一脈輒變爲十也

11. 五臟과 五色

五臟에는 五色이 있어서 五臟에 病이 있을 때 그에 해당하는 色이 모두 얼굴에 나타나는데 寸口尺內의 脈과 서로 相應해야 한다.

얼굴에 靑色이면 그 脈은 弦而急하고, 赤色이면 그 脈은 浮大而散하며, 黃色이면 그 脈은 中緩而大하며, 白色이면 그 脈은 浮濇而短하고, 黑色이면 그 脈은 沈濡而滑하다.

만약 色과 脈이 서로 相應하지 못할 경우에는 相勝의 脈이 나타날 경우에는 곧 죽게 되고 相生의 脈이 나타나면 병이 곧 나아지게 된다.

즉 面赤일 경우를 예로 들자면 赤色과 相應하는 心脈인 浮大而散한 脈이 나타난다. 相勝의 脈은 水克火한 腎(沈濡而滑)의 脈이나, 火克金한 肺(浮濇而短)의 脈이 나타난 것으로 곧 죽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相生의 脈은 木生火한 肝(弦而急)의 脈이나 火生土한 脾(中緩而大)의 脈이 나타나면 病이 곧 나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五臟에는 각기의 聲, 色, 臭, 味가 있으니 마땅히 寸口尺內의 脈과 相應해야 한다. 만약 不應하게 되면 病이 된다고 하였다.¹⁷⁾

12. 損脈과 至脈

脈이 이르는 수로 至脈과 損脈으로 구별한다.

至脈은 一呼 동안에 脈이 두 번 이르면 平이라고 한다. 一呼 동안에 脈이 세 번 이르면 離經이라고 한다. 一呼 동안에 脈이 네 번 이르면 奪精이라고 한다. 一呼 동안에 脈이 다섯 번 이르면 死이다. 一呼 동안에 脈이 여섯 번 이르면 命絶이다.

損脈은 一呼 동안에 脈이 한번 이르면 離經이라고 한다. 再呼 동안에 脈이 한번 이르면 奪精이라고 한다. 三呼 동안에 脈이 한번 이르면 死이다. 四呼 동안에 脈이 한번 이르면 命絶이다.¹⁸⁾

13. 四時의 旺脈

然 人吸者隨陰入 呼者因陽出 今吸 不能至腎 至肝而還 故知 一臟無氣者 腎氣先盡也

사계절에 의해서 脈象이 변화한다.

봄에는 弦脈, 여름에는 鉤脈, 가을에는 毛脈, 겨울에는 石脈이 나타난다.

봄의 弦脈은 肝에 속하고 東方木이다. 萬物이 始生하는 때이고 아직 나무의 가지와 잎이 자라지 않았으므로 그 脈이 柔弱하며 길다. 그러므로 弦脈이라고 한다.

여름의 鉤脈은 心에 속하고 南方火이다. 萬物이 무성해지고 가지와 잎을 늘어뜨린다. 모두 아래로 굽어서 같고리와 같다. 그래서 그 脈은 오는 것이 빠르고 가는 것이 느리다. 그러므로 鉤脈이라고 한다.

가을의 毛脈은 肺에 속하고 西方金이다. 萬物이 마치는 바 초목과 꽃과 잎이 모두 가을이 되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가지만 홀로 있게 되니 털과 같다. 그 脈이 오는 것이 輕虛해서 떠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毛脈이라고 한다.

겨울의 石脈은 腎에 속하고 北方水이다. 萬物이 모습을 감추는 바이다. (蟄居에 들어간다.) 겨울이 한참일 때에는 물이 凝結하여 들과 같이 된다. 그러므로 그 脈이 오는 것이 沈濡하고 滑하다. 그러므로 石脈이라고 한다.¹⁹⁾

17) 十三難曰 經言 見其色而不得其脈 反得相勝之脈者即死 得相生之脈者 病即自己 色之與脈 當參相應 爲之奈何 然 五臟有五色 皆見於面 亦當與寸口尺內相應 假令 色靑 其脈 當弦而急 色赤 其脈 浮大而散 色黃 其脈 中緩而大 色白 其脈 浮濇而短 色黑 其脈 沈濡而滑 此所謂 五色之與脈當參相應也 …… 五臟 各有 聲色臭味 當與寸口尺內相應 其不應者 病也 假令 色靑 其脈 浮濇而短 若大而緩 爲相勝 浮大而散 若小而滑 爲相生也

18) 十四難曰 脈有損至 何謂也 然 至之脈 一呼再至 曰平 三至 曰離經 四至 曰奪精 五至 曰死 六至 曰命絶 此至之脈也 何謂損 一呼一至 曰離經 再呼一至 曰奪精 三呼一至 曰死 四呼一至 曰命絶 此損之脈也

19) 十五難曰 經言 春脈弦 夏脈鉤 秋脈毛 冬脈石 是旺脈也 將病脈也? 然 弦, 鉤, 毛, 石者 四時之脈也 春脈弦者 肝東方木也 萬物始生 未有枝葉 故其脈之來 濡弱而長 故曰弦 夏脈鉤者 心南方火也 萬物所茂 垂枝布葉 皆下曲如鉤 故其脈之來疾去遲 故曰鉤 秋脈毛者 肺西方金也 萬物所終 草木華葉 皆秋而落 其枝獨在 若毫毛也 故其脈之

이는 四時의 旺脈이고 그 변화된 脈象을 平脈 病脈 死脈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春脈은 弦이다. 平脈은 微弦하다. 그 氣가 오는 것이 厭厭轟轟하여 마치 버드나무 잎을 만지는 것과 같다. 病脈은 胃氣가 적다. 그 氣는 더욱 實하고 滑하여 장대를 만지는 것과 같다. 死脈은 단지 弦하기만 하고 胃氣가 없다. 그 氣는 急하고 힘세며 더욱 強하여 마치 활시위를 새로 당기는 것과 같다.

夏脈은 鉤이다. 平脈은 微鉤하다.

그 脈이 오는 것이 累累(새끼를 잇달아 켜 모양)하여 고리와 같고 琅玕(옥과 비슷한 아름다운 돌)을 만지는 것과 같다. 病脈은 鉤脈象이 많이 나타나고 胃氣가 적다. 그 脈이 오는 것이 더욱 빨라서 마치 닭이 발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死脈은 단지 鉤 하기만 하고 胃氣가 없다. 그 脈은 앞은 굽고 뒤는 居하여 있으며, 허리띠의 고리와 같다.

秋脈은 毛이다. 平脈은 微毛하다. 그 脈이 오는 것이 藹藹 하여(우거진모양) 수레의 덮개와 같다. 누르면 더욱 커진다. 病脈은 毛脈의 형태를 많이 갖추고 胃氣가 적다. 그 脈이 오는 것은 위에 있지도 않고 아래 있지도 않아서 마치 닭의 깃털을 만지는 것과 같다. 死脈은 단지 毛하기만 하고 胃氣가 없다. 누르면 蕭索하고(활기가 없다.) 마치 바람이 털을 날리는 것과 같다.

겨울은 石脈이다. 平脈은 微石脈이다. 그 脈이 오는 것이 위는 크고 아래는 곧으며 柔滑한 것이 마치 참새의 부리와 같다. 病脈은 石脈상이 많이 나타나고 胃氣가 적은 脈이다. 그 脈象은 啄啄連屬(새가 부리로 모이를 연속해서 쪼는 것과 같이) 하고, 그 가운데가 조금 굽어 있다. 死脈은 단지 石脈상만 나타나고 胃氣가 없다. 오는 것이 解索과 같고 가는 것이 彈石과 같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四時의 脈은 모두 胃氣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서, 胃氣가 조금밖에 없으

면 病脈이고, 胃氣가 전혀 없으면 死脈으로 보고 있다.²⁰⁾

14. 三部九候診斷法

十六難에서는 脈에는 三部九候가 있다고 하였고,²¹⁾

三部는 寸, 關, 尺을 말하고 九候는 浮, 中, 沈을 말한다고 하였다.

上部 즉 寸部는 하늘을 본받기 때문에 가슴 이상에서 머리에 이르는 질환을 살필 수 있으며,

中部 즉 關部는 사람을 본받기 때문에 橫膈以下 臍部까지에 있는 질환을 살필 수 있다.

下部 즉 尺部는 땅을 본받기 때문에 臍部以下 발에 이르는 질환을 살필 수 있다.²²⁾

또한 部에는 四經이 있다고 하여 十二經脈으로 진단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手太陰肺經과 手陽明大腸經은 金에 속한다 足少陰腎經과 足太陽膀胱經은 水에 속한다.

20) 如有變 奈何? 然 春脈弦 反者爲病 何謂反 然 其氣來實強 是爲太過 病在外 氣來虛微 是爲不及 病在內 氣來厭厭轟轟 如循榆葉 曰平 益實而滑 如循長竿 曰病 急而動益強 如新張弓弦 曰死 春脈 微弦 曰平 弦多胃氣少 曰病 但弦 無胃氣 曰死 春以胃氣 爲本 夏脈鉤 反者爲病 何謂反 然其氣來實強 是爲太過 病在外 氣來虛微 是爲不及 病在內 其脈來 累累如環 如循琅玕 曰平 來而益數 如雞舉足者 曰病 前曲後居 如操帶鉤 曰死 夏脈 微鉤 曰平 鉤多 胃氣少 曰病 但鉤 無胃氣 曰死 夏以胃氣爲本 秋脈毛 反者爲病 何謂反 然其氣來實強 是爲太過 病在外 氣來虛微 是爲不及 病在內 其脈來 藹藹如車蓋 按之益大 曰平 不上不下 如循鷄羽 曰病 按之蕭索 如風吹毛 曰死 秋脈 微毛 曰平 毛多胃氣少 曰病 但毛無胃氣 曰死 秋以胃氣爲本 冬脈石 反者爲病 何謂反 然 其氣來實強 是爲太過 病在外 氣來虛微 是爲不及 病在內 脈來上下大 兌濡滑如雀之啄 曰平 啄啄連屬 其中微曲 曰病 來如解索 去如彈石 曰死 冬脈 微石 曰平 石多 胃氣少 曰病 但石無胃氣 曰死 冬以胃氣爲本

21) 十六難曰 脈有三部九候

22) 脈有三部九候 各何主之 然 三部者 寸關尺也 九候者 浮中沈也 上部法天 主胸以上 至頭之有疾也 中部法人 主膈以下 至臍之有疾也 下部法地 主臍以下 至足之有疾也 (十八難)

來 輕虛以浮 故曰毛 冬脈石者 腎北方水也 萬物之所藏也 盛冬之時 水凝如石 故其脈之來 沈濡而滑 故曰石 此四時之脈也

이는 金生水의 관계에 있고, 水는 흘러 아래로 행하기 때문에 上行할 수 없으므로 下部에 속한다.

足厥陰肝經과 足少陽膽經은 木에 속한다. 手太陽小腸經과 手少陰心經은 火에 속한다.

이는 木生火의 관계에 있다. 火焰은 上行하여 下行할 수 없으므로 上部에 속한다.

手心主(厥陰)心包經과 手少陽三焦經은 火에 속한다. 足太陰脾經과 足陽明胃經은 土에 속한다. 이는 火生土의 관계에 있다. 土는 中宮을 주관하므로 中部에 속한다.²³⁾

肺(大腸)	金	心(小腸)	火
脾(胃)	土	肝(膽)	木
心包(三焦)	火	腎(膀胱)	水

15. 男女의 脈에는 차이가 있다.

남자는 陽에 속하므로 남자의 脈은 關의 上部에서 나타나고, 여자는 陰에 속하므로 여자의 脈은 關의 下部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남자의 脈은 항상 尺脈이 弱하고, 여자의 脈은 尺脈이 항상 盛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에서 벗어나 남자에게서 여자의 脈(즉 尺脈이 盛한 경우)이 나타날 경우에는 부족한 것으로 病이 內部에 있는데, 왼쪽에서 이 脈이 나타나면 病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서 나타나면 病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다. 여자에게서 남자의 脈(즉 尺脈이 약한 경우)이 나타날 경우에는 太過로 病이 四肢에 있다. 왼쪽에서 이 脈이 나타나면 病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서 이 脈이 나타나면 病은 오른쪽에 있다.²⁴⁾

難經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脈象에서 尺, 寸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左右脈에서의 차이는 말하지 않고 있다.

16. 脈有伏匿

23) ……然 手太陽陽明 金也 足少陰太陽 水也 金生水 水流下行而不能上 故 在 下部也 足厥陰少陽 木也 生 手太陽少陰火 火炎上行而 不能下 故爲上部 手心主少陽火 生 足太陰陽明土 土主中宮 故 在 中部也

脈이 陰部位에 있으면서 도리어 陽脈이 나타나 는 것은 陽乘陰한 것이다.

關의 後는 陰이 動하는 곳이다. 尺의 범위인 關 으로부터 一寸사이에서 脈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서 尺部까지 덮어 들어가면 內關外格으로 陽이 乘한 脈이다.

脈이 비록 때로는 沈澹而短 한것은 陽中伏陰이라고 한다.

脈이 陽부위에 있으면서 도리어 陰脈이 나타나 는 것은 陰乘陽한 것이다.

關의 前 즉 寸部는 陽이 動하는 곳이다. 寸의 범위인 關으로부터 九分사이에서 脈이 나타나야 하지만 陰脈이 魚際까지 넘치게 되면 外關內格으로 陰乘의 脈이다.

脈이 비록 때로는 浮滑而長 한 것은 陰中伏陽이라고 한다.²⁵⁾

17. 脈과 症의 관계

形體에 病이 들고 脈이 병들지 않으면 살게 되고, 脈에 병들고 형체가 병들지 않으면 죽게 된다. 形體에 병들고 脈에 병들지 않는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병이 아니라고 여겼다.²⁶⁾

형체상의 변화가 오기 전에 脈象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十九難曰 經言脈有逆順 男女有恒 句而反者 何謂也 然 男子生於寅 寅爲木 陽也 女子生於申 申爲金 陰也 故 男脈 在關上 女脈 在關下 是以 男子尺脈恒弱 女子尺脈恒盛 是其常也 反者 男得女脈 女得男脈也 其爲病 何如 然 男得女脈 爲不足 病在內 左得之 病在左 右得之 病在右 隨脈言之也 女得男脈 爲太過 病在四肢 左得之 病在左 右得之 病在右 隨脈言之 此之謂也

25) 二十難曰 經言 脈有伏匿 伏匿於何臟而言伏匿邪? 然 陰陽 更相乘 更相伏也 脈居陰部而 反陽脈見者 爲陽乘陰也 脈雖時沈澹而短 此謂陽中伏陰也 脈居陽部而 反陰脈見者 爲陰乘陽也 脈雖時浮滑而長 此謂陰中伏陽也 重陽者狂 重陰者癲 脫陽者見鬼 脫陰者目盲

26) 二十一難曰 經言 人形病 脈不病 曰生 脈病 形不病 曰死 何謂也 然 人形病 脈不病 非有不病者也 謂息數不 應脈數也 此大法

18. 是動病과 所生病

동일한 脈象에서 是動病과 所生病으로 분류된다. 是動病은 邪가 氣의 부위에 있는 氣의 병이고, 所生病은 邪가 血의 부위에 있는 血의 병이다.

氣가 머물러 나아가지 못하면 氣가 먼저 병들게 되고, 이에 따라 血이 막혀서 흐르지 못하면 血이 뒤에 병들게 되는 것이므로 是動病이 먼저이고, 所生病이 後에 나타나게 된다.²⁷⁾

19. 關格의 脈

邪氣가 六腑에 있으면 陽脈이 不和하고 陽脈이 不和하면 氣가 머무르게 된다. 氣가 머무르게 되면 陽脈이 旺盛해진다. 陽氣가 크게 차서 陰氣가 서로 다스리지 못하면 關이라고 한다.

邪氣가 五臟에 있으면 陰脈이 不和하고 陰脈이 不和하면 血이 머무르게 된다. 血이 머무르게 되면 陰脈이 旺盛해진다. 陰氣가 크게 차서 陽氣가 서로 다스리지 못하면 格이라고 한다.

陰陽이 모두 旺盛하여 서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關格이라고 한다. 關格이 되면 그 命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²⁸⁾

즉 關格은 陰과 陽이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한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調和가 깨어지면 病이 危重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20. 脈의 虛實

脈이 濡한 것은 虛이고, 脈이 緊牢한 것은 實이다.²⁹⁾

21. 傷寒의 脈

傷寒은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즉 中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이다.

中風의 脈은 陽에서는 浮而滑하고 陰에서는 濡

而弱하다.

濕溫의 脈은 陽에서는 浮而弱하고 陰에서는 小而急하다.

傷寒의 脈은 陰陽이 모두 盛하고 緊澹하다.

熱病의 脈은 陰陽이 모두 浮하다. 浮之而滑하고, 沈之散澹하다.

溫病의 脈은 모든 經에서 行하므로 어느 經에서 動하는지를 알 수 없다.³⁰⁾

Ⅲ. 結 論

1. 難經脈法の 최대의 특징은 의심할 것 없이 難經이 제출하고 또 후대에 계속해서 채용된 獨取寸口 脈法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내용들은 아직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임상에서 사용될만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후 오래지 않아 王叔和가 脈經을 저술하여 難經을 완전하게 보충하였다. 難經은 한대에 이루어진 책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東漢시대이다. 王叔和는 魏晉 시대에 걸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難經과 脈經은 서로 쓰여진 시기가 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獨取寸口法은 이천년 이래 유일한 診脈방법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脈經이라 脈學家和 脈法에 관한

28) 三十七難曰 …… 邪在六腑則陽脈不和 陽脈不和則氣留之 氣留之則陽脈盛矣 邪在五臟則陰脈不和 陰脈不和則血留之 血留之則陰脈盛矣 陰氣太盛則陽氣不得相營也 故曰格 陽氣太盛則陰氣不得相營也 故曰關 陰陽俱盛不得相營也 故曰關格 關格者 不得盡其命而死矣

29) 四十八難曰 人有三虛三實何謂也 然 有脈之虛實 有病之虛實 有診之虛實也 脈之虛實者 濡者爲虛 緊牢者爲實 病之虛實者 出者爲虛 入者爲實 言者爲虛 不言者爲實 緩者爲虛 急者爲實 診之虛實者 濡者爲虛 牢者爲實 癢者爲虛 痛者爲實 外痛內快爲外實內虛 內痛外快爲內實外虛 故曰虛實也

30) 五十八難曰 傷寒有幾 其脈有變否 然 傷寒有五 有中風 有傷寒 有濕溫 有熱病 有溫病 其所苦各不同 中風之脈 陽浮而滑 陰濡而弱 濕溫之脈 陽浮而弱 陰小而急 傷寒之脈 陰陽俱盛而緊澹 熱病之脈 陰陽俱浮 浮之而滑 沈之散澹 溫病之脈 行在諸經 不知何經之動也 各隨其經所在而取之

27) 二十二難曰 經言 脈有是動 有所生病 一脈變爲二病者 何也 然 經言 是動者 氣也 所生病者 血也 邪在氣 氣爲是動 邪在血 血爲 所生病 氣主响之 血主濡之 氣留而不行者 爲氣先病也 血壅而不濡者 爲血後病也 故 先爲是動 後所生也

著作은 누구나 실제적으로는 難經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2. 難經의 寸, 關, 尺에 대한 새로운 학설 또한 중대한 개혁과 돌파이다. 內經 이전에는 비록 尺診이 있었지만 그것은 고대 經絡檢査의 診皮, 色診 등의 성질과 같은 것이었다. 소위 尺寸診 또한 寸脈의 움직임을 진찰하는 것과 尺을 진찰하는 것을 서로 결합시키는 과도기적 성질의 산물이었다. 難經이 비로소 정식으로 尺脈을 진찰하는 것을 제출하였고 尺寸사이에 關을 설치함으로써 陰陽의 경계를 분명히 나누었다. 관은 다만 分界線이었다. 이러한 기초 상에 脈經은 진일보하여 關의 장도를 정해 냄으로써 寸關尺의 정해진 三指診脈의 문제를 해결하여 脈法으로 하여금 널리 보급하게 하고 합리적인 조작으로써 실제적인 효과를 보게 하였다.

3. 難經은 고대의 명사와 성설에 대해서 왕왕 옛날 말을 소급했으면서도 새로운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일종의 매우 기묘함을 형성하여 새로운 관점방법의 분별법을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診脈法을 이루었다. 예컨대 三部九候는 內經 등의 책에서는 全身遍診法이었다. 그러나 難經은 비록 여전히 三部九候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 내용은 도리어 獨取寸口라고 하는 일종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루었고 三部라는 것을 寸關尺이라고 바꾸었고, 九候라는 것은 寸關尺의 浮中沈을 말하고 있다. 難經은 關格脈 등의 명칭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았다.

4. 難經은 아직 寸關尺을 臟腑에 나누어 설정한 그러한 방법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의 발전추세는 이러한 방면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었다. 비유하면 難經은 二難 가운데서 寸은 陽을 주관하고 尺은 陰을 주관한다고 주장하였다. 四難에서는 또한 浮는 陽이고 沈은 陰이라고 제기하였다. 아울러 그 결합은 五臟에 이르렀다. 곧 心肺는 모두 浮의 부분에 있고, 腎肝은 모두 沈의 부위에 있으며 脾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5. 五難은 浮沈의 서로 다른 다섯 가지 등급으로써 五臟을 구별하였다. 十八難은 上, 中, 下 즉 寸, 關, 尺 三部와 手太陰, 陽明, 足少陰, 太陽 등 六經

의 정해진 위치와의 관계를 제출하였고, 아울러 上은 胸과 위를 주관하고, 中部는 배 아래에서 배꼽까지를 주관하고, 下部는 배꼽아래를 주관한다는 것 등등이다.

6. 종합하면 이러한 인식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곧 難經은 寸을 陽이라 하고 尺을 陰이라 하고, 浮를 陽이라 하고 沈을 陰이라고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浮는 陽이고 沈은 陰이라는 기본 인식 위에서 五臟의 浮沈定位法을 발전하였고, 寸은 陽이고 尺은 陰이라는 기본적인 인식 상에서 인체의 上中下 三部와 寸關尺의 經絡 表裏와 인체의 上中下 三部의 寸關尺 定位法을 발전하였다. 難經은 비록 寸關尺의 臟腑定位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經絡表裏가 대표 하는 것은 臟腑이고, 인체의 上中下 三部는 각각 臟腑의 대체적으로 같지 않은 위치와 관련되어 있고, 그 위에 難經은 尺은 뿌리이고 腎과 命門은 뿌리라는 등의 설법을 강조하였다. 실제로는 이미 寸關尺을 가져다가 나누어 臟腑를 주관한 가능성과 대체적인 방향 성질 위치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고대해서 제출하였다, 다만 명확하게 어떠한 규정이 없었을 뿐이다.

參 考 文 獻

1.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67.
2. 成樂塞, 八十一難經解釋, 서울, 高文社, 1990.
3. 傅維康,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4. 趙恩儉, 中醫脈診學, 서울, 醫聖堂, 1993.
5.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